인생의 험한 항로를 헤치고 평화로운 미래 세계로 나아가자



① 학생회관과 크라운관 전경 및 공사 장면 ② 학생회관 출입구 상단 동판에 새겨진 경구 탁본(1줄로 된 내용을 지면상 2줄로 실음)



김희찬(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 ㉒
『학생회관/크라운관』

'경희의 유산' 2차 연재를 시작하며–경희기록관은 2026년 가을 학기부터 1년간 '경희의 유산' 2차 연재를 이어간다. 이번 연재에서는 캠퍼스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건축물, 장소를 중심으로, 경희인의 삶과 추억,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역사의 흔적을 소개한다.

서울캠퍼스 정문에서 교시탑을 지나 간호-이과대학으로 올라가면 우측 정면에 매우 독특한 외관의 학생회관과 왕관 형태의 크라운관을 만날 수 있다. 두 건물은 외형상 독립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돛단배(대형 범선)와 같은 하나의 건물로 설계됐다는 점이 독특하다. 즉, 시각적으로는 2개의 건물이지만, 공간적으로는 하나의 건물인 셈이다. 이 둘은 1968년 7월부터 1974년 5월 18일까지 대략 6년여에 걸친 대공사 끝에 완성됐다.

우리 대학은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교훈으로 삼고 있다. 그런 만큼 '학원의 민주화'를 위한 학생 자치활동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보장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학생회관의 건립은 매우 뜻깊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

학생회관은 10층 높이의 돛과 같은 형태로, 1968년 7월 착공해 1971년 5월 18일 완공됐다. 학생회관이 개관하자 당시 학생들은 자기들만의 자치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대학 생활을 캠퍼스에서 보내자는 자발적인 학생운동이 여기저기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학 차원에서도 이를 확대해 '학원생활화운동'으로 전개·발전시켜 나아갔다. '학원생활화운동'에서는 교수와의 면담, 클럽활동 참여, 도서관 이용, 스포츠 생활화, 각종 세미나 참석, 학생회관 이용 등이 적극 장려됐다.

학생회관 내부에는 학생들을 위한 백화점 시설, 학생복지시설, 오락시설, 학생자치회 사무실, 학생자치활동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건물 출입구 상단에는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경구가 동판에 새겨져 있어 이곳을 드나드는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이 동판은 경희인 모두가 경희정신에 입각해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인 인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이곳에 부착해 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회관과 연결된 크라운관은 하늘을 나는 우주선 모양에 위쪽 끝을 왕관 모양으로 만든 형태이다. 학생회관이 완공되고 3년 후인 1974년 개교 25주년이 되는 5월 18일 완공됐다.

특히 개관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것은 개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경희 칸타타' 공연이 이곳에서 개최됐다는 사실이다. '경희 칸타타'는 경희 사반세기를 축하하는 곡이기 때문에 가사에는 단순한 시적 표현보다는 대학을 설립하고 역사를 창조한 경희의 의지와 정신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경희의 얼이 담긴 대서사시(大敍事詩)가 완성된 것이다.

'경희 칸타타' 중 제2부 선인송(仙人頌)에 나오는 '목련화'는 이 기념식에서 처음으로 음대 합창단에 의해 불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크라운관은 음악, 무용, 연극 등 다양한 예술 공연장으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평화의 전당이 개관하기 전까지 교내외 각종 회의, 행사가 열리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중강당의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해 왔다.

이러한 학생회관과 크라운관의 형태적 특징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개의 건물이 독립적이면서도 하나의 건물로 표현되는, 즉 외형상 초대형 돛단배(대형 범선)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듯한 동적인 느낌도 동시에 주고 있다.

학생회관을 돛 모양으로 설계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꿈과 용기를 갖고 인생의 험한 항로를 힘차게 항해해 나가자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크라운관을 왕관 형태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왕관처럼 고귀한 정신과 이상을 품고 평화로운 미래 세계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세월이 흘러 비록 건물은 낡고 기능도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이 건물이 갖는 정신과 이상만큼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길 기원해 본다.